

환경교육 실태 및 발전방향

양재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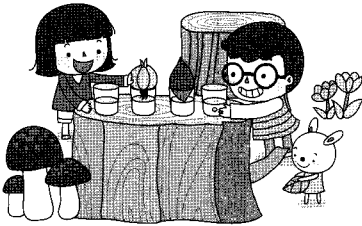
환경부 녹색협력과장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폐기물공학(석사)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장, 교통환경관리과, 화학물질안전과 서기관 등 역임

tel. 02-2110-6687 | yjm0404@hanmail.net

의의 및 중요성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건강한 미래시민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양식으로의 전환(Green Conversion)을 위한 핵심동력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으로부터의 체험과 학습을 통해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녹색생활을 내면화하여 녹색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이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및 녹색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기조에 따라 친환경 가치관 정립 등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 왜 환경교육을 강조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리우 UN회의('92)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제시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녹색 경주(Green Race)가 진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응체계를 추진 실행하는 등 탄소배출에 관한 녹색 시장·녹색 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녹색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 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기반 구축의 3개 분야에서 17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5개년(2011~2015)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교육의 현황

환경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¹⁾ 학교 환경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사회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으로 자연체험, 환경탐사, 생태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직접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게 된다.

2009년 환경부 조사결과 초등학교 5,615개교 중 2,535개교(45.2%)가 연중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기준 5,376개교 중 671개교(12.5%)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학교 환경교육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열을 나타내고 있다.

〈 표. 연도별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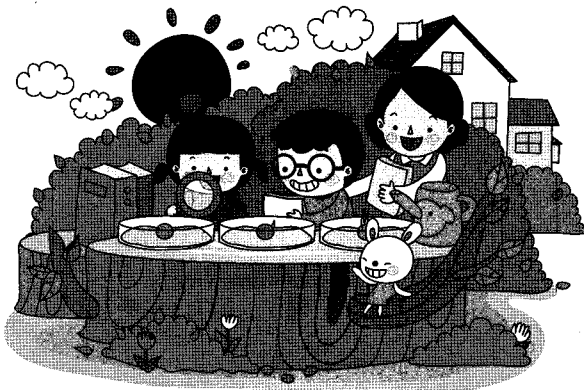
구분/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고등학교수	5,226	5,228	5,336	5,381	5,376
선택학교	1,077	955	889	902	671
%	20.6	18.1	16.6	16.7	12.5

낮은 환경교육열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 교사의 경우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1,502명중 501명에 해당하는 33.3%가 환경관련 전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환경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함께 환경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표. 환경교사 전공현황 〉

구분	계	전공현황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외(유사)전공	연수후 자격취득	비전공교사
2010	1,768	201	224	219	990
2011	1,502	119	225	157	1,001

사회환경교육은 저조한 학교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연환경연수원, 환경단체 등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홍보단을 통한 환경교육 및 노래, 뮤지컬 공연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부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08. 3. 법률 제8949호)
 3)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08. 3. 법률 제8949호)
 4)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08. 3. 법률 제8949호)

환경교육의 전망

학교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의 수업 일수가 '12년부터 주 5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주 3~4시간으로 배당하여 다양한 활동 중에 환경체험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으로 환경과목을,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으로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채택하여야 함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추진 방향

앞으로 녹색환경교육은 다음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자 한다.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환경교육, 청소년 육성, 환경정책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통한 정책추진 및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협의 등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환경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 수요를 해결하는 지역 환경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녹색 실천 및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상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²⁾하여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체계를 확립하여 전문적인 환경교육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양성기관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교육청, 유역환경청, 교육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간 연계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교육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확산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추진제도인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³⁾는 '10년 시행 이후 현재 90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부 장관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공공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환경교육 관련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형 현장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국어, 사회, 수학 등 주요과목의 내용을 환경사례 중심으로 개편·보급하는 노력을 통해 환경내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합교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수능에 제시되는 환경문항 확대 노력을 통해 환경교육열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 올려야 한다.

사회 환경교육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자연환경연구원, 환경교육홍보단, 환경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교육은 '11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교육단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360개의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통한 생활속 환경보전 실천과 체험학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교육은 다양한 장소 및 자유로운 교육 주제와 형태를 통해 생활 전반에서 친환경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형태로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교과부는 '09년 12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통해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을 창의·인성교육 시범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하여,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력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관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 체험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인증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그 체험활동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을 통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환경교육 직무연수 및 지속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환경교육 교수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⁴⁾ 통한 전문 환경교육에 대한 잠재적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적 여건 성숙수준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지식의 교류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조성을 통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을 통한 학습과 녹색실천의 연계

환경부는 적실성 높은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체계 구축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개발, 교육자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영상,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친환경 감수성을 배양하고 녹색 생활양식의 확산 유도를 위한 친환경 문화예술 공감대 마련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을 통한 녹색실천 양식으로의 전환은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에 의해 이행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구축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전문 인력의 교육 역량, 교육 콘텐츠가 조화롭게 구성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미래 녹색환경교육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및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에 따라 기존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문제로 인식하고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국정비전으로 발표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녹색 경주(Green Race)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인 녹색환경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녹색성장은 국민 모두가 친환경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전환(Green Conversion)해 나갈 때 달성될 수 있다. 환경교육은 미래 녹색시민 양성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인적자원을 창출하여 “나로부터의 실천”을 확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